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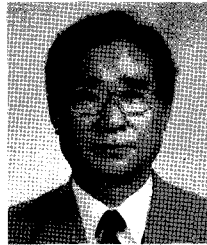


봉療와 蜂針療法에 관한 임상실험레 및 연구논문選集<4>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硏究會 會長, 國際蜂療保健蜂針學術硏究會 副會長

5-1. 봉침의 반응과 면역(免疫)

- 본 논문은 日本 渡辺孝 박사가 日本봉침지 4호, 5호, 6호, 7호에 걸쳐 독일의 필립 텔크(Philip Terch)박사의 강의내용을 연재한 것임
- 번역=한국봉침요법연구회 부회장 박진순



고상기회장

그리하여 찢린 부위의 주위에는 때로는 약간의 발적(發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부기인데 이 현상을 제 1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과 부기는 2~3일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동반하지만, 이 통증은

점점 사라지고 쏘인 부위가 점점 가려워지다가 며칠 뒤에는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제1차 반응은 봉침의 항구적인 부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침에 과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끔 오한(惡寒)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고 기분이 나빠져서 현기증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적에 이어 발생하는 부기가 신경적 반응을 동반하는 경우, 그것을 봉침의 제2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꿀벌에 쏘인 후 실신(失神)하여 잠시 후에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자신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은 단 한번뿐입니다. 독일에서 들은 사례로 열정적인 양봉가이면서 절대로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완전무장 하는 양봉가들이 있다는 예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체의 사람들도 꿀벌에 쏘인 후 위험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한번도 꿀벌에 쏘인 일이 없는데 갑자기 대량의 꿀벌에 쏘였을 경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류의 대다수는 조금씩 꿀벌에 쏘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저는 류마치스의 치료법으로서 가장 놀라운 치료효과를 보이는 봉침요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하고, 의학잡지 이외에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오늘날까지 나는 이 결심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료 의사들로부터 받은 것은 거절뿐이며 고생하여 얻은 나의 지식도 이대로라면 영원히 주의를 끌지 못하고 묻혀버리지 않을까 무척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동지인 양봉가 여러분의 초청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양봉업 전반의 이익을 위해서도 저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25년 가까운 저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꿀벌의 침이 건강한 육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을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꿀벌이 사람 피부의 심층부에 침을 꽂으면 독선(毒腺)의 내용물이 동시에 그 속으로 주입됩니다.

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꿀벌에 쏘이는 회수가 많을수록 붓는 정도도 줄어들고 쏘여서 생기는 오한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인체가 점차 봉독에 면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은 일정기간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단기간동안 지속되지만 봉독에 대한 면역이 수년간 반복되었을 경우 이 면역은 항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년간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꿀벌에 쏘여도 전혀 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날 때부터 봉독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사람은 류마치스에 대해서도 선천적으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2. 나의 최초의 성공 사례

봉침이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두병인 “류마치스와 통풍(痛風)”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기사를 여러 가지 잡지에서 내가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문외한이나 돌팔이의 어설픈 지식으로 쓰여진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가엾은 미소를 띄웠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의 동료 의사들은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침과 류마치스의 특이한 관계를 확인한 영광은 저의 것이고, 그러한 효능을 다방면에 거쳐 모든 각도에서 조명해 낸 것은 저의 업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열정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꿀벌에 혼날 정도로 많이 쏘이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재발하던 근육 류마치스가 두 번 다시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류마치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봉침요법을 시행하였으며, 봉침요법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봉침요법을 시행했었습니다. 이 때까지 저는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었지만 봉침작용 방법에 대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봉침요법의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다음 증상을 치료하면서 부터입니다.

몇 년간이나 난청과 두부(頭部) 류마치스로 고생하던 여성이 1879년 당시에 의사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 여성환자는 그 때까지 많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나 자신의 치료도 거부하면서 “저는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히 선생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봉침요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봉침요법으로 치료를 해보라고 권유하면서 그녀가 전에 받은 치료를 전적으로 거절한 어느정도 성가신 환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환자에게 봉침치료를 하면 꿀벌에 쏘인 부위가 부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나서 은근히 그녀가 거절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봉침요법은 이 때까지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제안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매일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그 환자에게 봉침요법 시술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증상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고 그녀의 환부가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90마리의 벌침을 그녀의 머리에 자침을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저는 그녀에게 “도저히 이래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저의 소견을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쪼록 계속해서 봉침요법을 시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봉침의 수를 늘려나갔고 그날 아침에는 13마리의 꿀벌을 그녀에게 시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

로부터 호텔에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부어 오르고 피부는 회색으로 보였고 거의 눈도 뜨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봉침요법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럭저럭 부기가 오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녀의 경우에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그녀의 류마치스 통증도 완전히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 저는 류마치스와 봉침요법의 사이에는 특이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5-3. 예외적인 이상반응

위의 환자를 치료한 후부터는 류마치스에 대한 봉침요법의 효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위의 환자를 같은 치료 방법으로 계속 치료를 한 결과 보통의 의사로서 환자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희생을 치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경험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내린 결론은 진성(眞性)류마치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꿀벌에 쏘여도 붓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기를 동반하는데 필요한 봉침의 수는 전적으로 류마치스 질환의 정도와 이환된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2~3개의 봉침으로 충분하겠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수백 또는 수천개의 봉침으로 자침해야지만 비로소 부기가 나타나거나 제2차 반응(부기와 함께 오는 신경적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극히 중증이나 장기간 이환되어 있는 경우

에는 때때로 수일간이나 지속되던 부기가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었지만 2~3일 경과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한 제2차반응이 생겨났습니다. 류마치스에 이환되어 있지 않아도 신경과민 체질인 사람의 경우에는 벌에 쏘이면 때때로 토하거나 실신하는 등의 심한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와 마찬가지로 류마치스 환자의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는 극단적으로 심한 반응이 나타나서 환자 자신이나 가족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면 놀라서 찢찢매고 며칠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연구한 끝에 겨우 그 증상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런 증상이 전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환자와 가족에게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었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봉침의 효과가 나타난 결정적인 징후여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 증상도 곧 없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사(疑似) 류마치스증 이라고도 할 병이 많이 있습니다. 즉 류마치스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 전혀 다른 병에서 온 것인데 때로는 접촉전염병(接觸 傳染病)의 성질을 가진 것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류마치스의 경우에는 봉침에 대해 즉석에서 극심한 반응이 생기므로 곧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에 대해서는 봉침요법이 유해무익하므로 절대로 시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진성(眞性)류마치스 환자이면서도 봉침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약물치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극히 보통의 무해한 약물투여에 대해서 환자가 심한 반응을 나타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이체질(特異體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오랜 기간의 치료활동 중에서 봉침을

참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난 것은 단 한번뿐이었습니다.

레데라 교수는 1879년에 '빈의학시보(빈醫學時報)'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태어나서 처음 봉침을 맞은 환자가 상당히 심한 반응을 나타낸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불운하게도 이것은 레데라 교수가 봉침요법을 시도한 최초의 환자였고, 그 이후 그는 이 불운한 경험 때문에 봉침요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의 논문이 의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사들은 봉침요법을 시도할 용기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레데라 교수보다 훨씬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당한 것은 다수의 증례가 정상적인 치유과정으로 거치는 것을 확인한 후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외란 있는 법이므로 저는 이런 경우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5-4. 류마치스의 치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류마치스 치료의 성공 예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강조하여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류마치스 환자는 극히 조금씩 봉침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치료 시에 1회에 3개 이상의 자침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이에 견딜만하면 서서히 하루의 봉침량을 증가하여 나중에는 100~150 개의 봉침을 환자에게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 격통을 동반하는 관절류마치스의 경우에는 봉침에 의한 즉효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즉효적인 약물이 있으므로 나는 언제나 우선 그 약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봉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약물사용 시에 잠시 봉침요법을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약물

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격통이 반복되거나 류마치스 질환에 의해서 심장장애가 왔을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봉침요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봉침요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심장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봉침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안정되었습니다. 류마치스성의 심장 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성적 심장질환의 악화를 막거나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그래도 봉침요법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류마치스가 완치되면 환자는 심장 장애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류마치스 환자의 경우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 사례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어느 환자로부터 왕진을 부탁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관절류마치스의 치료를 받았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여성으로 이 환자는 침대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중증의 심장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봉침요법의 소문을 듣고 필사적으로 이 치료를 받기를 열망하였으며 이 환자를 신중하게 진찰하고 봉침요법 치료를 결정하자 환자 가족의 한 사람이 저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다 죽어 가는 사람에게 또다시 고통을 줄 작정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봉침 한개를 시술했고 30분이 지나서는 2마리, 다시 1시간 지나서 2마리를 자침하였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꼭 참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완치할 가망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호에 계속